



휘장 저편: 영원한 세상에서의 삶

“죽어 땅에 묻힌 의로운 자들은 다시 일어나 슬픔이나 고통을 겪지 않고 더 이상 죽지 않는 불멸의 영광 가운데 영원한 빛 속에 살게 되며,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가 될 것입니다.”

조셉 스미스의 생애에서

조셉 스미스의 성경 번역 작업을 통해 우리는 영원한 세상에서의 삶에 대한 좀 더 놀라운 시현을 받게 되었다. 1832년 2월 16일, 선지자는 오하이오 주 하이럼에 있는 존 존슨의 집에서 시드니 리그돈을 서기로 하여 작업을 하는 중이었다. 그는 요한복음을 번역하고 있었다. 선지자는 후에 이렇게 말했다. “내가 받았던 여러 가지 계시에서 볼 때, 인간의 구원을 다루는 많은 중요한 내용들이 성경에서 삭제되었거나 성경이 편집되기 전에 분실된 것이 분명했다. 지금까지 보존된 진리에 입각하여 볼 때,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각기 지상에서 행한 행위대로 보상해 주신다면, 성도들의 영원한 안식처로 예비된 ‘천국’이라는 용어는 한 곳 이상의 왕국을 포함해야 한다는 것이 자명한 것으로 보였다.”¹

선지자는 요한복음 5장 29절을 번역했다. 그 구절은 모든 사람이 부활 때에 나오는 방법, 즉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고 설명했다. 선지자와 시드니가 이 성구를 깊이 생각하고 있을 때, 그들에게 놀라운 시현이 열렸다. 선지자는 이렇게 기록했다. “영의 권능으로써 우리의 눈이 열리고 우리의 이해력이 깨우침을 받아 하나님의 일들을 보고 이해하게 되었나니—이는 참으로 세상이 있기 전 태초부터 있던 것들이요, 아버지께서 그의 독생자를 통하여 정하신 것들이라. 이 독생자는 태초부터 아버지의 품 안에 계셨느니라.(교리와 성약 76:12~13)



오하이오 주 하이럼에 있는 복원된 존 존슨의 집
1832년 2월 존 존슨의 집에서, 선지자 조셉 스미스는 하나님께서
그의 자녀들을 위해 마련하신 세 영광의 등급에 대한 시현을 보았다.

이 영광스러운 시현에서 선지자와 시드니 리그돈은 아버지의 우편에 있는 아들을 보았으며 “그의 충만함을 받았”(교리와 성약 76:20)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그분의 자녀들을 위해 마련하신 세 개의 영광의 왕국을 보았으며 누가 이 왕국을 얻게 될 것인지 알게 되었다. 그들은 또한 사탄이 하나님의 면전에서 쫓겨나는 것과 사탄이 자신들을 지배하도록 허락한 자들이 겪는 고통 또한 보았다.

이 시현은 훗날 교리와 성약 76편이 되었다. 선지자는 이렇게 설명했다. “주님의 왕국의 질서에 대해 이 시현을 통해 세상에 비치는 빛보다 성도들을 더 기쁘게 할 수 있는 것은 없을 것이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의 모든 율법, 모든 계명, 모든 약속, 모든 진리, 인간의 운명에 대해 언급하는 모든 부분은 그 경전의 순수함이 인간의 어리석음으로 인해 변경되지 않는 한 ... 이 기록이 영원한 세상의 기록에서 온 것임을 입증해 준다. 그 이상의 숭고함, 언어의 정결함, 행동 범위, 구원의 상속자들이 주님께 자백하고 무릎을 꿇기 위해 마련된 계속적인 시대의 성취를 향한 지속 시간, 충실한 자들을 위한 보상, 그리고 죄를 위한 형벌은 인간의 편협한 생각을 초월한 것이기에, 모든 정직한 사람은 이렇게 외칠 수밖에 없다. ‘그것은 하나님에게서 온 것이다.’”²

조셉 스미스의 가르침

하나님께서서는 그분의 자녀들을 위해 세 등급의 영광을 마련하셨다.

“저의 주제는 요한복음 14장에서 찾을 수 있는 죽은 자의 부활입니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요한복음 14:2) 이 부분은 너희가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가 되도록 하기 위해 ‘내 아버지 왕국에는 많은 왕국이 있도다’라고 되어 있어야 합니다. ... 모든 사람에게는 자신의 순서에 따라 해의 왕국의 율법에 순종하는 자들을 위한 거처가 있으며, 그 율법에 순종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다른거처가 있습니다.”³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나는 하나의 전체적인 천국과 지옥이 있다고 믿습니다. 그곳에 가는 모든 사람들은 엇비슷하며, 모든 사람은 그곳에서 같은 정도로 비참하거나 같은 정도로 행복할 것입니다.’

“이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사람은 저마다 육신으로 행한 행위에 따라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존귀한 사람, 유덕한 사람, 살인자와 간음한 자

들 모두가 함께 떼지어 모이게 된다니요? 그러나 성 바울은 우리에게 세 영광과 세 하늘이 있다고 가르칩니다. 그는 셋째 하늘로 들리워 갔던 사람을 알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40~41; 고린도후서 12:2~4 참조) … 예수께서는 본인의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렸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요한복음 14:2~3 참조)⁴

“가서 [교리와 성약] 76편에 있는 시현을 읽어 보십시오. 거기에는 영광 위의 영광, 즉 해의 영광, 달의 영광, 그리고 별의 영광이 자세하게 설명되어 있으며, 한 별이 다른 별과 다른 것같이 별의 영광에 속한 자의 영광이 서로 다르다고 분명하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해의 영광에서 다스리는 사람은 자신이 통치하는 곳에서 하나님입니다. …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도다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고린도전서 15:41~42)⁵

예수 그리스도의 간증을 받아들이고 복음의 의식을 받아들이며 신앙으로 극복하는 자들은 해의 왕국을 상속 받게 될 것이다.

선지자 조셉 스미스는 다음과 같은 시현을 보았으며, 그것은 후에 교리와 성약 76:50~59, 62, 68~70에 기록되었다. “그리고 또 우리는 증거하노니— 이는 우리가 보고 들었음이고, 이것이 의인의 부활에 나아올 자들에 관한 그리스도의 복음의 증언임이라—그들은 예수에 대한 증거를 받아들이고 그의 이름을 믿고 그의 이름으로 물 속에 매장됨으로써 그의 매장된 방식을 좇아 침례를 받은 자들이니, 이는 그가 주신 계명에 따른 것이라—그리하여 계명들을 지킴으로써 그들이 씻음을 받아 그들의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되어, 성령을 줄 권능에 성임되고 인봉된 자의 안수으로써 성령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또 그들은 신앙으로써 승리한 자요, 아버지께서 의롭고 참된 모든 자에게 내려 주시는 약속의 성령으로 인봉된 자들이니라.

“그들은 장자의 교회 회원인 자들이요, 그들은 아버지께서 그들의 손에 만물을 주신 자들이니—그들은 그의 충만함과 그의 영광을 받은 제사장과 왕인 자들

이요, 또 뿔기세텍의 반차를 좇은 지극히 높으신 이의 제사장들이니, 뿔기세텍의 반차는 에녹의 반차를 좇은 것이요, 에녹의 반차는 독생자의 반차를 좇은 것이니라.

“그런즉 기록된 대로 그들은 신들이요,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들이니—그런즉 만물은 그들의 것이라, 살았거나 죽었거나, 현재의 것이나 장래의 것이나 다 그들의 것이요, 그들은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

“이들은 하나님과 그분의 그리스도의 면전에서 영원무궁토록 거하리라 … 이들은 하나님과 그리스도가 만민의 심판자로 계시는 하늘에 이름이 기록된 자들이니라. 이들은 예수 곧 자신의 피 흘림을 통하여 이 완전한 속죄를 이루신 새 성약의 증보자 예수를 통하여 온전하게 된 의로운 자들이니라. 이들은 해의 영광의 몸을 가진 자들이요, 그들의 영광은 해의 영광과 같으니, 참으로 만유 가운데서 가장 높으신 하나님의 영광이라. 그의 영광은 궁창의 해가 그 상징으로 기록되어 있느니라.”⁶

선지자 조셉 스미스는 1843년 5월에 다음 내용을 가르쳤으며, 이 내용은 이후 교리와 성약 131편 1~4절에 기록되었다. “해의 영광 안에는 세 하늘 곧 세 등급이 있느니라. 가장 높은 것을 얻기 위하여서는 사람이 신권의 이 반채새롭고도 영원한 결혼 성약을 의미함에 들어가야 하느니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면, 그는 그것을 얻을 수 없느니라. 그가 다른 곳에는 들어갈 수 있으려니와, 그것이 그의 왕국의 끝이니, 그는 증식할 수 없느니라.”⁷

“그렇다면 영생이란, 유일하게 현명하고 참된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죽은 자의 부활을 얻고 영원한 빛 가운데 거하게 되며, 영원한 권능으로 둘러싸인 자들처럼 영광 중에 앉게 될 때까지 여러분 스스로가 어떻게 하나님과 같이 되고 왕과 제사가 될 수 있는지를 배워야 합니다. 그것은 작은 단계들에서 시작하여 그 윗 단계로 올라가고, 작은 소임에서 큰 소임을 얻으며, 은혜에 은혜를, 승영에 승영을 더함으로써 배울 수 있습니다.

“… [죽어 땅에 묻힌 의로운 자들은] 다시 일어나 슬픔이나 고통을 겪지 않고 더 이상 죽지 않는 불멸의 영광 가운데 영원한 빛 속에 살게 되며,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가 될 것입니다. 그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그것은 여러분이 여러분보다 앞서간 자들처럼 신의 상태에 이르고, 영



해의 왕국을 상속 받는 자들은 “해의 영광의 몸을 가진 자들이요, 그들의 영광은 해의 영광과 같으니, 참으로 만유 가운데서 가장 높으신 하나님의 영광이다.”

원한 권능의 보좌에 오를 때까지 똑같은 권능, 똑같은 영광과 똑같은 승영을 상속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⁸

“죽음으로부터 영광스러운 부활을 얻는 자들은 주권들, 권능들, 보좌들과 통치권들, 그리고 천사들보다 높이 승영한 자들이며 하나님의 상속자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라고 분명하게 선포된 자들입니다.(로마서 8:17 참조)”⁹

“세상에서 존경을 받”는 자들, 예수님에 대한 간증에 용감하지 않은 자들은 달의 왕국을 상속 받을 것이다.

선지자 조셉 스미스는 시현에서 다음과 같은 것을 보았으며, 그것은 이후 교리와 성약 76편 71~79절에 기록되었다. “그리고 또, 우리는 달의 영광의 세계를 보았나니, 보라, 또 바라보라, 이들은 달의 영광에 속한 자들이라. 그 영광은 아버지의 찬탄하심을 받은 장자의 교회의 영광과는 다르니, 이는 마치 달의 영광이 궁창에 있는 해와 다르듯 다르더라.

“보라, 이들은 율법 없이 죽은 자들이니라. 그리고 또한 그들은 옥에 갇힌 사람들의 영이라. 아들이 그들을 방문하여 그들에게 복음을 전파하셨나니, 이는 그

들이 육체를 가진 사람처럼 심판받게 하려 하심이라. 이들은 육체로 있을 동안 예수에 대한 증거를 받아들이지 아니하였으나, 그 후에 그것을 받아들인 자들이니라.

“이들은 세상에서 존경을 받으나 사람의 계교로 눈이 먼 자들이니라. 이들은 그의 영광을 받으나, 그의 충만함을 받지 못하는 자들이니라. 이들은 아들의 임재함을 받으나, 아버지의 충만하심을 받지 못하는 자들이니라.

“그런즉 그들은 달의 영광의 몸이요, 해의 영광의 몸이 아니니, 달이 해와 다르듯 영광이 다르도다. 이들은 예수에 대한 간증에 용감하지 아니한 자들이니, 그런즉 그들은 우리 하나님의 왕국을 다스릴 면류관을 얻지 못하느니라.”¹⁰

악한 자들과 복음이나 예수님에 대한 간증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들은 별의 왕국을 상속 받을 것이다.

선지자 조셉 스미스는 시현에서 다음과 같은 것을 보았으며, 그것은 이후 교리와 성약 76편 81~85, 100~106, 110~112절에 기록되었다. “그리고 또, 우리는 별의 영광을 보았나니, 그 영광은 별들의 영광이 궁창에 있는 달의 영광과 다르듯 그 영광이 더 작은 것이니라.

“이들은 그리스도의 복음이나 예수에 대한 증거를 받아들이지 아니한 자들이니라. 이들은 성령을 부인하지 아니하는 자들이니라. 이들은 지옥에 던져지는 자들이니라. 이들은 마지막 부활 때까지, 주 곧 그리스도 어린 양이 자기 일을 마치시기까지 악마로부터 구속 받지 못할 자들이니라 …

“이들은 자신들이 혹은 어떤 이에게 속하고 혹은 또 다른 이에게 속한다 말하는 자들이니—혹은 그리스도에게 혹은 요한에게 혹은 모세에게 혹은 일라이어스에게 혹은 이사이어스에게 혹은 이사야에게 혹은 에녹에게 속한다 말하는 자들이니라. 그러나 복음이나 예수의 증거나 선지자들이나 영원한 성약을 받아들이지 아니한 자들이니라.

“마지막으로 이 모든 자는 성도와 함께 모여 장자의 교회로 붙들려 올라가 구름 속으로 영접되지 아니할 자들이니라.

“이들은 거짓말하는 자요 마술하는 자요 간음하는 자요 음행하는 자요 누구든지 거짓을 사랑하며 지어 내는 자들이니라. 이들은 땅에서 하나님의 진노를 겪

는 자요, 이들은 영원한 불의 복수를 당하는 자들이니라. 이들은 때가 차기까지 지옥에 던짐을 받아 전능하신 하나님의 진노를 겪는 자들이니, 곧 그리스도께서 모든 원수를 자기 발 아래 굴복시키사 자기 일을 온전히 이루실 때까지라.

“또 주의 음성을 들으니, 이르시기를, 이들 모두는 무릎을 꿇고 모든 혀가 영원무궁토록 보좌에 앉으신 이에게 고백할지니라 하시더라. 이는 그들이 자기 행위에 따라 심판을 받을 것이요, 각 사람은 자신의 행위에 따라, 예비된 거처에서 자기 자신의 영토를 받을 것임이라. 또 그들은 지극히 높으신 이의 종이 되리라. 그러나 하나님과 그리스도께서 거하시는 곳, 곧 끝이 없는 세상에는 올 수 없느니라.”¹¹

악한 자들이 겪게 되는 고통은 그들이 누릴 수도 있었던 영광을 얻지 못했다는 것을 아는 것이다.

“하나님께서서는 그분의 음성에 순종하지 않는 자는 지옥의 저주를 면치 못하리라 고 말씀하셨습니다. 지옥의 저주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은 자들에게 따르는 형벌입니다. … 저는 모든 사람이 그분께서 열어 놓으신 길로 들어가지 않을 경우 저주를 받게 된다는 것을 압니다. 이것은 주님의 말씀으로 만들어진 길입니다.”¹²

“그들이 죽은 후에 가는 영의 세계에서 죽은 영들이 겪게 되는 큰 고통은 다른 영들이 누리는 영광을 그들은 얻지 못함을 알게 되고, 그들도 그 영광을 누릴 수도 있었음을 인식하는 것이며, 그에 대해 그들이 스스로를 질책하게 되는 것입니다.”¹³

“불안만큼 무서운 고통은 없습니다. 이것은 악한 자들에게 임하는 형벌입니다. 그들의 의심, 걱정, 그리고 불안은 그들로 하여금 슬피 울고 통곡하며 이를 갈게 합니다.”

“사람은 스스로를 고문하고 정죄합니다. 그렇기에 다음과 같은 말이 있습니다. 그들은 불과 유향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요한계시록 21:8 참조) 사람 마음속의 낙담의 고통은 불과 유향으로 타는 못과 같이 격심한 것입니다. 저는 그러한 것이 사람이 겪는 고문이라고 말씀드립니다.”¹⁴

“...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원한 빛 가운데서 부활하여 일어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영원한 빛 가운데 거하시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더

러움 속에서 정죄 받기 위해 부활할 것입니다. 그것은 불과 유향 못처럼 고통스러운 것입니다.”¹⁵

학습과 가르침을 위한 제언

본 장을 공부하거나 가르칠 준비를 할 때 다음 제언을 고려한다. 도움이 더 필요할 경우, vii~xii쪽을 참조한다.

- 조셉 스미스와 시드니 리그돈은 성경 구절에 대해 명상하고 있는 도중 교리와 성약 76편에 기록되어 있는 계시를 받았다.(217~219쪽; 또한 교리와 성약 76:15~19 참조) 어떤 개인적인 경험들이 명상을 통해 더 큰 이해를 얻을 수 있음을 깨닫는 데 도움이 되었는가? 다른 장들과 마찬가지로, 본 장을 공부하거나 토론할 때 시간을 내어 여러분이 읽은 진리에 대해 명상한다.
- 요한복음 14장 2~3절과 고린도전서 15장 40~41절을 읽는다. 본 장에 있는 가르침들은 이 구절들을 이해하는 데 어떻게 도움이 되는가?
- 해의 왕국, 달의 왕국, 별의 왕국을 상속 받을 자들에 대한 설명에는 “예수에 대한 증거”라는 문구가 다섯 차례나 나온다.(220~224쪽) “예수님에 대한 간증에 용감한” 사람이 갖고 있는 특성들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가? 예수님에 대한 간증에 용감한 자들에게는 어떤 약속이 주어지는가?
- 220쪽 마지막 단락을 읽으면서 “신앙으로 극복”한다는 문구에 특별한 주의를 기울인다. 우리가 극복해야 할 것들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은 어떻게 이 생에서 우리가 가진 문제들을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되는가?
- 221쪽 마지막 단락 전체를 읽는다. 우리의 영원한 진보에서 왜 “조금씩 과정을 거쳐” 발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가? 여러분은 우리가 이러한 방법으로 배우고 발전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보여 주는 어떤 경험들을 했는가?
- 달의 왕국을 상속 받을 사람들 중 일부를 설명하는 223쪽 둘째 단락을 읽는다. 우리는 어떻게 “사람의 계교로 눈이 [머는]” 것을 피할 수 있는가? 우리는 어떻게 다른 사람들이 눈이 머는 것을 피하도록 도울 수 있는가?
- 224쪽에서, 조셉 스미스가 다음 세상에서 사악한 자들이 처할 상태를 설명하기 위해 사용한 단어와 문구들을 찾아본다. 이러한 단어와 문구들은 여러

분에게 무엇을 알려 주는가? 어떻게 사람은 “스스로 자신을 고문하고 정죄하는 자”가 될 수 있는가?

관련 성구: 엘마서 41:2~8; 교리와 성약 14:7; 76:20~49; 88:15~39

주

1. *History of the Church*, 1:245; 현대화된 구두법; “History of the Church”(원고)에서 발췌, book A-1, 183쪽, 교회 기록 보관소,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 유타 주 솔트레이크시티
2. *History of the Church*, 1:252~253; “History of the Church”(원고)에서 발췌 book A-1, 192쪽, 교회 기록 보관소.
3. *History of the Church*, 6:365; 단락 구분 변경; 1844년 5월 12일, 일리노이 주 나무에서 조셉 스미스가 전한 설교에서 발췌; 토머스 불릭이 보고함.
4. *History of the Church*, 5:425~426; 현대화된 구두법; 1843년 6월 11일, 일리노이 주 나무에서 조셉 스미스가 전한 설교에서 발췌; 윌포드 우드럽과 윌라드 리차즈가 보고함; 또한 부록 562쪽, 세 번째 항목 참조.
5. *History of the Church*, 6:477~478; 1844년 6월 16일, 일리노이 주 나무에서 조셉 스미스가 전한 설교에서 발췌; 토머스 불릭이 보고함; 또한 부록 562쪽, 세 번째 항목 참조.
6. 교리와 성약 76:50~59, 62, 68~70; 1832년 2월 16일, 오하이오 주 하이럼에서 조셉 스미스와 시드니 리그돈에게 주어진 시현.
7. 교리와 성약 131:1~4; 원본에는 이 말씀이 괄호 안에 들어 있음; 1843년 5월 16일과 17일, 일리노이 주 라무스에서 조셉 스미스가 전한 가르침.
8. *History of the Church*, 6:306; 1844년 4월 7일, 일리노이 주 나무에서 조셉 스미스가 전한 설교에서 발췌; 윌포드 우드럽과 윌라드 리차즈, 토머스 불릭, 윌리엄 클레이튼이 보고함.
9. *History of the Church*, 6:478; 1844년 6월 16일, 일리노이 주 나무에서 조셉 스미스가 전한 설교에서 발췌; 토머스 불릭이 보고함, 또한 부록 562쪽, 세 번째 항목 참조.
10. 교리와 성약 76:71~79; 1832년 2월 16일, 오하이오 주 하이럼에서 조셉 스미스와 시드니 리그돈에게 주어진 시현.
11. 교리와 성약 76:81~85, 100~106, 110~112; 1832년 2월 16일, 오하이오 주 하이럼에서 조셉 스미스와 시드니 리그돈에게 주어진 시현.
12. *History of the Church*, 4:554~555; 단락 구분 변경; 1842년 3월 20일, 일리노이 주 나무에서 조셉 스미스가 전한 설교에서 발췌; 윌포드 우드럽이 보고함; 또한 부록 562쪽, 세 번째 항목 참조.
13. *History of the Church*, 5:425; 1843년 6월 11일, 일리노이 주 나무에서 조셉 스미스가 전한 설교에서 발췌; 윌포드 우드럽과 윌라드 리차즈가 보고함; 또한 부록 562쪽, 세 번째 항목 참조.
14. *History of the Church*, 6:314; 1844년 4월 7일, 일리노이 주 나무에서 조셉 스미스가 전한 설교에서 발췌; 윌포드 우드럽, 윌라드 리차즈, 토머스 불릭, 윌리엄 클레이튼이 보고함.
15. *History of the Church*, 6:314, 317; 현대화된 구두법; 1844년 4월 7일, 일리노이 주 나무에서 조셉 스미스가 전한 설교에서 발췌; 윌포드 우드럽과 윌라드 리차즈, 토머스 불릭, 윌리엄 클레이튼이 보고함.